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행정안전부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국정조사 운영일정에 관한 건
- 국정조사 기관보고 요구의 건
- 국정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 국정조사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 실시의 건
- 국정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 행정안전부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국정조사 운영일정에 관한 건 9

4. 국정조사 기관보고 요구의 건	9
5. 국정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6.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9
7. 국정조사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 실시의 건	9
8. 국정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9

(17시20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예산 관련 안건들과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한병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연희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사보임하고 왔는데, 제 지역구가 청주시홍덕구입니다. 그 홍덕구에 참사가 일어난 오송이 있어서 제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보임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원포인트입니까?

○이연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9월 25일까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하고 같이 행안위를 함께하게 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드리고, 오송 참사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재난 시대에 전국에 1098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어디서든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이번 국정조사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행정안전부

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7시22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성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위성곤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시정 3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6건 등 총 2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부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24년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경정 없이 임의로 지방교부세 예산 중 2.2조 원을 미교부하였는데 향후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세입경정 절차 없이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는 집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지원 정보화사업 관리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행정안전부 수탁 사업 불용·이월액 미반납, 휴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총인건비 한도 미준수 등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사업의 실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사업 수요 확보를 위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수가 감소하고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가 정체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을기업 지정의 고용 측면에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전부 제도개선 사항으로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 선거 기간마다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철저한 추계 분석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예산과 타 사업 간의 연계적인 이·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량 및 정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갖추고 인력풀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한시적 인력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시험 시행을 위한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을 지양하고 시설 현황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 치안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송환율로 변경하고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부과 체계와 과태료 미납 시 제재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관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청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해화하였는 바 향후 유사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현장인력 참여율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비를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손을 한번 좀 들어 봐 주시지요.

그러면 두 분……

○**박덕흠 위원** 자료 요구 비슷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일단 두 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박덕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연희 위원님,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직무대리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덕흠 위원**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육동한 춘천시장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춘천시장이 춘천 소재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춘천시장의 차량임을 확인했는데 그 차량 소유주가 1시간 후에 나와서 바로 확인을 할 정도로 차량이 과과가 많이 됐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찾아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국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무혐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 전 춘천시장의 음주 여부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됐는지 조사한 서류를 좀 보내 주시고요. 또 특히 장례식장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보면서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충돌 전, 사고 전 동선을 조사를 했는지 여부, 그 수사 여부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오늘 결산 심의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주호영 부의장께서 부대 의견을 내셨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자체의 신뢰성 및 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이번 대통령선거 치를 때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디테일하지 못한 선거 관리, 부실선거에 의해서 부정선거라는 게 확산이 돼서 우리 사회가 사회갈등비용을 아주 많이 치르는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선거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도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번 대통령 선

거를 할 때도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서 선거 과정을 참관시키고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선관위는 외부 통제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혁신해 온 인사·감사 분야의 혁신안과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후에 저희가 검토하는 선거절차 개선안에 대해서 외부 시각에서 진단·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 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외부 전문가 10명, 내부 2명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그 부분은 선거절차 쪽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 관리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선거절차 개선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부실에 대한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런 사회적 갈등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성곤 위원 내용 수정이 좀 필요해서요.

○위원장 신정훈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단간단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성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사무총장님,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 잘못하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문제 일으키고 소쿠리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부정 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 뽑혔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선거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중국산 와이파이를 이용한 선거라든지 중앙 서버가 털려 가지고 사전선거의 개표 내용이 조작되어서 부정 선거가 일어나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무슨, 지금 말씀 자체는 굉장히 너무 저자세적이세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못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정선거 신앙촌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선관위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선관위를 빌미로 삼아서 중국이니 무슨 와이파이니 중국 공산당이 뭘 지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의 신앙의 주장을 하고 다니는 잘못된 일 때문에 생긴 문제를 마치 선관위가 뭔가 태도를 고쳐서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 그런 식의 얼토당토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고발하시고 조치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관위의 서버에서 조작이 일어나 가지고 봉투 안에 있는 표가 바뀌고 형상기억종이가 등장하는 얘기를 선관위가 보고 있으면서 그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냥 있는 국민들조차도 ‘이거 진짜 무슨 부정선거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신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형상기억종이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총장님? 단 1명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없는데 왜, 지금 말씀 자체는…… 마치 선관위가 뭘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끝났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나 부대의견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에 대해서 각 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와 부대의견도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춘 이태원 특조위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정책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은 신뢰받는 소방,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국정조사 운영일정에 관한 건

4. 국정조사 기관보고 요구의 건

5. 국정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7. 국정조사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 실시의 건

8. 국정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7시46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3항 국정조사 운영일정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정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3항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보고를 9월 1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를 동월 9월 15일 그리고 청문회를 23일로 각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조사 운영 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조사 운영 일정에 관한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보고를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 5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936건을 의결하여 9월 8일 18시까지 제출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청문회,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를 실시하되 출석 할 증인·참고인 및 진술인과 현장조사 대상 지역 등 세부 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후 의결 또는 공지하도록 위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문회,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9월 10일 기관보고 시 출석할 증인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일정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은 추후 협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법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서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법수 위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위해서…… 죄선을 다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무감찰도 했고 그다음에 수사도 했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북 국정조사다라는 비난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어떤 하소연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협치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합의를 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시행하려고는 합니다만……

정말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진실규명을 위한 거라면 수사를 더욱,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기관보고 한 번, 현장조사 한 번 그리고 청문회 한 번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보고를 하면 기관보고답게 기관증인들을 불러서 지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일반증인을 또 포함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 특히 그때의 기관장들을 다 불러서 한다는 게 과연 업무보고, 기관보고의 성격에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반증인을 굳이 안 불러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러 가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면 또 그런 일반증인들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데 굳이 기관보고를 하는데 기관보고를 하는 기관증인 외에도 일반증인을 부른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라면 그 국정조사답게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로 딱딱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결국 일반증인까지 다 불러서, 그 전의 기관장들까지 다 불러서 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이유보다는 오히려 정쟁화시켜서 그 사람들 창피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밖에,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일반증인은 청문회에서 부르자. 굳이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까지 부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관보고 증인에 대해서는,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건영 간사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일반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쭉 해 보면 기관보고 할 때 현직 기관장들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이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기존 제방이 무단 설계에 의해서 거기로 물이 월류를 한 건데 사실은 2021년까지 신설 제방을 완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제방이 절개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기관장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충북도가 22년도에 재난훈련과 관련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23년도에 오송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반, 여러 가지 신고 전화나 재난본부 가동 상황을 보면 완전히 막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수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시 해당되는 기관장한테 물어야 저는 이런 것들이 진상조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유사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지하차도들이. 그래서 계속 비가 더 많이 오는 기후재난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근무했던 책임 기관장들이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서범수 위원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반대토론, 찬성토론 지금 계속하시는데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조금 균형을 맞춰서 한 번만 더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이연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기관보고를 하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보고를 받을 때는 기관보고를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현장조사 가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질문하고 해결책,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청문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 또 일반증인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고 밝히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합체가 되는 거지, 기관보고를 하는 날 전체 불러서 이걸 하루 만에 모든 걸 끝내자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아 보면서 러프하게 가서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절차를 밟으면서 진상규명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그런 진상규명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기다리게 하고 세워서 창피 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걸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진상규명을 회피하겠다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마무리……

○위원장 신정훈 간단히 마무리하시지요.

이광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윤건영 위원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간사 협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23년에 벌어졌던 참사를 당시에 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하는 게 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참사가 벌어졌을 때 곧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밝히고 2년 동안 와서 지금에서야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

기관보고를 할 때 현직이 있고 전직이 있는 겁니다. 이번 기관보고에는 현직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가 벌어졌던 그 당시의 기관장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보고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당시 오송 참사가 벌어졌던 상황들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직 기관장 이외에 실국장들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송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의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저희가 기관장들에 대해서 망신 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직은 기관장만

부르고 전직은 기관장 그리고 실국장 같이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서범수 간사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있으시겠지만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태원 국조와 내란 국조에 계속 참여했던 위원인데요. 이태원 국조, 내란 국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보고는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아니, 잠깐만요.

○이연희 위원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 신정훈 간단히 한 30초만 쓰십시오.

○이연희 위원 일반증인 명단을 보니까 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추가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고요.

당시 충북도청에 행복청 성 주무관이라는 분이 네 차례에 걸쳐서 도청에 월류 위험이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전화를 계속 하는데 기관보고 할 때 그 증인을 추가로 요청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 문제지요?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실장 윤여문 여기서 의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의견을 받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연희 위원님의 의견은 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의결에.

다만 위원님들 간에 지금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112조와 제71조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증인도 합의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투표를 해서 증인만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래도……

○박덕흠 위원 그래도 간사 간 합의를 하면 저희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이것 증인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신정훈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 간사 간의 협의가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방금 들은 말씀대로 각자의 의견들이 상당히 팽팽하고 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간사 간의 합의를 요청드렸는데……

○박덕흠 위원 표결은 하나 마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연희 위원 합의해 주시지요. 사실상 25일이 국정조사인데 우리가 한 번씩 해 가지

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어차피 한 이틀 정도 되는데, 하루 하루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연희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현직 기관장 불러다가 무슨 기관보고를 받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그런데 또 현직 기관장이 오면 나름대로 그 밑의 보좌진들이 다 채워주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계속성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도 그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광희 위원** 국조의 청문회를 하루에 끝낸 게 언제 있었습니까? 하루에 끝내는 것도 지금 마뜩지가 않은데……

○**이연희 위원** 통상적으로 국정조사 한 50일간 했는데 이번에 9월에 하는 것은 한 25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광희 위원** 이삼일은 해야 될 청문회를 하루에 끝내는 게…… 그러면 그것부터라도 일단 의결할까요?

○**서범수 위원** 그것은 합의 다 된 거고요. 더 이상, 그걸 다시 번복하자는 말씀인데……

○**이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충분히 양보를 지금 한 건데……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전직도 제가 볼 때는 장관이나 이분들이 사실상 상황을……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부르고,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이 돼 있는데 오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위원장 신정훈** 기관증인들의 편의라든가 또 망신 주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사실 2년이나 지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대단히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 또 추가적인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시간을 더 늘려 가지고 협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71조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찬성 13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증인 총 58명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함께 이번 국정조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길지 않은 조사기간이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종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연희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이현리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종서

재정담당관 이광진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오승훈

보건안전담당관 정건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구동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기획운영관 한성원

10·29이태원 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옥미선